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심의평

이번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에 많은 예술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를 통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예술 활동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신 예술가분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또 선정되지 못한 많은 예술가분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심의의 기준은 지원 공고에 기술된 바에 준하여 공연제작, 음반제작 등 창작기금 사용을 위한 예산 사용보다는 본인의 예술활동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이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예술적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청목적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신청목적에 걸맞게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주안점 두어 평가 하였습니다. 또 기존 본인의 활동과 어떠한 변별성을 담아 예술확장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사용하려 하는지, 향후 활동방향에 구체성과 현실성이 있는지도 심의기준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지원금의 성격에 맞게 여타의 다른 지원사업과 사용항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예술가분들이 작업실 임차료, 악기구입, 소프트웨어 구입등을 예산항목에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한 작업실 또는 악기구입 통하여 향후 어떠한 활동을 할 예정이고, 그 결과 본인의 기존 예술활동에서 어떠한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 등 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변별력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분들이 기존 음원제작, 앨범제작 관련 창작비용을 지원하셨습니다. 진정 음악인은 음반과 공연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이 예술활동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지원금의 지원 목적은 창작활동의 주안점보다는 활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기에 그러한 신청서 가운데 기존의 음반 활동과의 차이점, 예술적 스토리텔링이 자세히 지원서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분들도 모두 예술가이기에 지속적인 음반을 발표와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예술가분들께 같이 힘내자는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9.

심의위원 민소윤, 류태형, 유형열, 홍지원